

소비에트 정권과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변화

- 1920년대를 중심으로

최 소 영*

1. 머리말

문명의 십자로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이 지역에 등장했던 국가들만큼이나 다양한 종교들이 부흥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조로아스터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쿠산왕조 시기에 지어진 불교유적지들은 현재에도 새롭게 발굴되고 있으며, 마니교와 네스토리안교(경교)의 공동체는 이슬람이 전래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유지되었으며, 마침내 이슬람교가 전래된 이후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은 거대한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슬람의 정착 이후에도 이 지역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종교들이 흘러들었는데, 그 중에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토착 민족을 제외한 이민족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러시아민족의 종교도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는 제정 러시아의 정복활동과 더불어서 러시아농민들이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¹⁾ 시작되었다. 제정러시아의 국교였던 러시아 정교는 당연히 투르케스탄 지방 총독(губернато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어야 했지만, 카프카즈 지역에서 모슬렘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고전했던 경험을 목격한 러시아 관리들은 지역의 모슬렘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실시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많은 견제 및 제약을 받으며 중앙아시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게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구 활동이 안정에 접어들자마자 러시아 중앙에서

*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 역사연구소 박사학위 취득 예정.

1) 17세기 러시아 정교회의 분열(раскол) 이후 구교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구교도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을 피해 외부와의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데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것은 19세기 중엽에 러시아 사제들이 파견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발생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하여 러시아 정교회는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시기의 종교문제는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유물론자들의 반종교정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되었다. 특히 소비에트 정권의 종교정책과 러시아 정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임영상²⁾, 황영삼³⁾, 김수희⁴⁾ 등을 비롯하여, 국외에서는 엘리스(J. Ellis)⁵⁾, 포스펠롭스키(Д. В. Поспеловский)⁶⁾, 오딘초프⁷⁾(М. И. Одинцов)를 비롯한 많은 학자에 의하여 통괄적으로나 혹은 시기별로 나누어져 연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연구 대상이 된 지역도 러시아 정교도가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이 대부분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슬람이 우세한 지역인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소비에트 시기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의 연구가 당연히 이슬람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소수 민족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슬람교 다음으로 많은 신도를 지닌 러시아 정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부랴코브(Ю. Ф. Буряков), 주코바(Л. И. Жукова), 프로스쿠린(В. Н. Проскурин)⁸⁾ 등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저술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나 교회 활동 보다는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파괴되었던 정교회 건축물들의 발굴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정

-
- 2) 임영상(1995) 「혁명과 종교: 러시아 정교회, 1917-1929」, 『외대사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연구소, 제 6집, 163-213쪽.
 - 3) 황영삼(1997) 「페레스트로이카와 러시아 정교회의 위상 변화」, 한국외대 국제관계연구학과 박사논문.
 - 4) 김수희(1996) 「구소련과 러시아 정교」, 『슬라브연구』,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제 12권, 51-72쪽.
 - 5) J. Ellis(1986) *The Russian Orthodox Church - A Contemporary Histor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6) Д. В. Поспеловский(1995)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в XX веке*, М.:Республика.
 - 7) М. И. Одинцов(1994) *Государство и церковь в России, XXвек*, М.:ЛУЧ РАУ.
 - 8) Ю. Ф. Буряков, Л. И. Жукова, В. Н. Проскурин(1998) "К истории христианства в Средней Азии," *К истории христианства в Средней Азии*, Ташкент.

교회 편집부에서 펴내고 있는 일부의 저술⁹⁾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말까지 이르는 시기의 중앙아시아 러시아 정교회의 상황은 연구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소련의 종교문제의 연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저술들이 이 시기에 몰려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으로, 투르케스탄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당시의 소비에트의 종교정책이 매우 가혹해서 사제들이 유형에 처해지거나 대부분의 정교회 사원이 폐쇄되어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사실만 매우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정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이 시기가 중앙아시아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에서 공백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아직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혹은 언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1920년대에 중앙아시아의 투르케스탄 주교구(Туркестанская Епархия)에서 발생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타쉬켄트를 중심으로 한 투르케스탄 주교구와 알마티를 중심으로 한 세미레치 주교구(Семиреченская Епархия)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투르케스탄 주교구가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처음 발생하였고, 세미레치 주교구는 투르케스탄 주교구가 방대해지자 혁명 직전에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또한 1920·30년대는 소비에트의 종교정책이 실험되고 정착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고착된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이후 수십년 동안 구소련의 전형적인 형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논문의 본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발표된 연구서가 없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국립 중앙 문서보관소(ЦГА РУз)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당시의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상황을 알아볼 예정이다. 이 자료들은 당시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담당하던 우즈베크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그동안 비밀 문서로 보관되어 있다가 구소련의 붕괴 이후 개방된 것이 대부분이다.

9) Владимир, Митрополит Бишкекский и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й(2002) *Земля потомков патриарха Тюрка*, М.: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й Патриархии과 잡지 Восток Свыше. Выпуск I-VIII (2001-2005) 등이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2. 혁명 이전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상황

중앙아시아에 러시아 이주민이 처음 나타난 것은 17세기 말엽인데,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구교도들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외부와의 통행이 어려운 동카자흐스탄 지역의 계곡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에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러시아 국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러시아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인데, 이는 당시 러시아의 경작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다. 러시아 농민은 토지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스텝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그 후 차츰 카자흐 민족의 영토로 퍼져서 결국은 투르케스탄의 국경에 이르게 되었다. 농민들의 이러한 이주는 단독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제정 러시아의 정책에 의해 군부대의 활동이 선행된 것이었다. 즉, 군부대가 차츰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해 나아가고, 점령 지역의 경작지로 농민들을 이주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군부대와 농민을 따라서 러시아 정교회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하였다.

19세기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정교의 교회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먼저, 일명 ‘행군교회’로 불리는 이동교회인데, 이는 주로 군부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군부대는 영토확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했고, 따라서 정교회 사원으로 천막이나 일시적인 가건물을 이용했다. ‘행군교회’에 소속된 사제들은 임시 예배당에서 사용할 예배용 집기들을 소장하고 다녔다.¹⁰⁾

두 번째는 농민들의 정착지에 지어진 상설 교회의 형태이다. 중앙아시아 최초의 상설 교회는 1850년에 카자크 마을인 코팔(Копал)에 천막으로 지어졌다.¹¹⁾ 그 후에는 말린 벽돌을 사용하여 사원을 지었는데, 말린 벽돌은 내구력이 떨어져서 처음으로 내리는 비를 맞자마자 부서지기 일쑤였다고 한다. 제정 러시아 본토의 화려한 정교회 건축물과 비교되는 이러한 불품없는 모습은 중앙아시아의 정교회가 국교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었다.¹²⁾

10) Ю. Ф. Буряков, Л. И. Жукова, В. Н. Проскурин(1998), с. 13.

11) 이 교회의 첫 사제 임명은 1852년에 이루어졌다.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교구의 개설과 사원의 건설이 일치하는 경우가 적었고, 반대로 사원이 지어지고 몇 년 지난 후에야 교구가 개설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책, с. 15.

12) Владимир, Митрополит Бишкекский и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й(2002), с. 165.

중앙아시아 러시아 정교회의 세 번째 교회 형태는 일명 ‘열차 교회’이다. 1880년대 투르케스탄 지역에 철도가 건설되면서 이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급증하게 되었지만 러시아 정교회의 교구 건설은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도의 각 지선으로 ‘열차교회’를 파견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열차 교회는 각 역마다 멈춰 서서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정교도들의 세례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성찬식을 행한 후에 다른 역으로 이동하였다.¹³⁾

한편, 1850년에 최초의 상설 정교 사원이 등장한 이후 1850년대 중반에서 1860년대에 걸쳐 중앙아시아에는 교구 건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20여개가 넘는 교구가 건설되었다.¹⁴⁾ 이 교구들은 일부는 오렌부르크 주교의 관할로, 또 일부는 톰스크 주교의 관할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중앙아시아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었으며, 오렌부르크와 톰스크의 주교들이 늘어나는 교구들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일찍부터 독립 주교구의 건설에 대한 정교회의 요청이 있었고, 또한 투르케스탄의 총독인 카우프만(К.П.Кауфман)도 청원을 하자 1871년 6월 17일 신성종무원(Св.Синод)의 결정에 의해 투르케스탄 주교구가 설립된다.

하지만, 주교구의 설립과 더불어 중앙아시아에서는 지방 총독과 정교회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첫 중심지는 정교회의 희망과는 다르게 투르케스탄의 중심지인 타슈켄트가 아니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 베르니(Верный)시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타슈켄트가 러시아 정교회의 중심지가 되면 이슬람에 대한 러시아 제국의 압력으로 비추어져 현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고, 또한 흑시라도 정교회가 총독의 행정적 권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결정된 것이었다.¹⁵⁾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중심지의 결정과 더불어 정교회가 총독에 대해 불만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슬람과의 차별 정책 때문이었다. 투르케스탄의 총독들은 카프카즈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현지 모슬렘들의 종교생활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으며, 회교성원과 메드레세(이슬람신학교)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교회는 19세기 말까지 국고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원은 이주자들이나 상인들의 기부로 지어졌고, 따라서 러시아 본토의 화려한 외관과는 비교할 수

13) 같은 책, c. 172.

14) В. А. Яковлев(1902) *Из церковной жизни Туркестана*, Верный, сс. 6-9.

15) Ю. Ф. Буряков, Л. И. Жукова, В. Н. Проскурин(1998), с. 16.

도 없이 매우 초라했고 사제들의 생활도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로젠바흐(Розенбах, 1884-1888) 총독 시기에 조금 바뀌었지만, 이는 투르케스탄에서 러시아 제국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1888년 로젠바흐는 “화려하고 장대한 회교성원이나 메드레세(신학교)에 비교되는 궁핍하고 형편없는 정교회의 외관은 매우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알렉산드르 III세는 국고에서 정교회 사원 건설을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도시의 일부 사원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것도 일부 금액만 지급되었을 뿐이었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재정 지원이 총독부와 정교회의 화해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르케스탄의 지방 정부와 정교회의 갈등은 강화되었는데, 특히 가장 극심한 대립을 보이게 된 것은 총독 브레브스키(А. Вревский 1889-1898)가 교회 내부의 일에 간섭을 하고 교구사제를 직접 파견하려고 시도하면서였다. 주교 그리고리(Григорий(Полетаев) 1892-1895)가 이러한 간섭을 거절하자, 브레브스키는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없애고 모든 교구의 관할권을 육군성으로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 계획은 다음 총독인 두호브스키(С. Духовский 1898-1901)에 의해 실현되어, 1900년 투르케스탄의 도시와 요새의 사원들과 교구들은 모두 페테르부르크의 육해군 사제 관청으로 전달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시골에 흩어져있는 교구들과 도시의 학교 및 묘지에 부속된 사원들만 담당하게 되었다.¹⁷⁾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요한 교구들에 대한 권한을 잃기는 하였지만,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상황이 그렇게 암울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투르케스탄으로 이주한 러시아 정교도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서 신도들이 늘어났으며, 그 결과 디미트리(Димитрий(Абашидзе) 1906-1912) 주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정교회 사원이 78개에서 161개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던 것이다. 또한 1910년에는 투르케스탄의 모든 교구에 사제들이 파견될 수 있었고¹⁸⁾, 육해군 사제 관청으로 이전되었던 사원과 교구들도 다시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관할로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¹⁹⁾

16) Владимир, Митрополит Бишкекский и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й(2002), с. 168.

17) 같은 책, сс. 194-195.

18) 이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현지에 있는 교사나 교육받은 현지인에게도 성직자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디미트리 주교가 신성종무원의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은 정교회의 주교구청(Кафедральный собор)을 투르케스탄의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타쉬켄트로 옮기게 된 것이었다. 1916년 12월 신성종무원의 결정에 의해 주교의 체류지와 주교 감독국은 타쉬켄트로 옮겨지게 되었고, 기존의 중심지였던 베르니를 중심으로 하여서는 세미레치 주교구가 새로 형성되었다.²⁰⁾ 이 결정에 의하여 1917년 2월 주교구청이 타쉬켄트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투르케스탄 주교구가 새로운 소비에트 체제에서 보다 빠른 정보를 얻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분열

10월 혁명이 다가올 무렵 러시아 제국 내의 정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고무된 상태였다. 1914년의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제국 내에 130명의 주교를 지닌 67개의 주교구와 3만 5천개의 초급학교, 58개의 신학교를 거느리고 있었다.²¹⁾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1905년 혁명 직후부터 정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혁신파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볼셰비키 혁명이 다가오면서 정교회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관계를 청산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었다.²²⁾ 정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은 전국교회회의(Поместный Собор)에 교회의 운영권을 이양하라고 주장했지만, 오랜 휴지기²³⁾를 거친 후 1917년에 소집된 전국교회회의에서는 오히려 총대주교좌(Патриархат)의 부활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혁명 직후인 1917년 11월 5일(구력)에 모스크바의 수좌대주교였던 티혼(Тихон)이 총대주교로 선출된다. 하지만, 총대주교좌의 부활은 혁신파의 불만을 야기하여 전국교회회의의 도중에 퇴장하는 사건까지 발

19) 같은 책, с. 204.

20) Ю. Ф. Буряков, Л. И. Жукова, В. Н. Проскурин(1998), с. 18.

21) Д. В. Поспеловский(1995)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в XX веке*, М., с. 35.

22) 이들 개혁주의자들은 고대교회의 슬라브어 대신 현대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신도들도 성찬식에 참석시킬 것과 교회의 운영권을 성직자와 신도들에 의해 선출된 전국교회회의(Поместный Собор)로 이전시킬 것, 그리고 백색 성직자(결혼한 교구 사제)와 흑색 성직자(미혼 수도사)의 구분을 철폐할 것 등을 주장했다. 제프리 호스킹(1991) 『蘇聯史』, 김영석 옮김, 홍익사, 231쪽.

23) 전국교회회의가 마지막으로 소집되었던 것은 1682년이였다.

생하게 되었고, 후에 혁신파와 정통 정교회의 본격적인 갈등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불세비키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그 동안 준비해두었던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차례로 공포한다. 교회와 교구사제들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토지령이 내려졌고, 뒤를 이어 교회와 수도원의 토지를 포함한 모든 농경지는 국가에 이양되었으며(구력 12월 4일), 교회에 부속된 모든 학교들은 인민위원회 교육부로 이관되고 이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되며(구력 12월 24일), 교회에서 올리는 결혼식은 무효라는 선언(구력 12월 18일)이 내려졌다. 그 후 이 모든 조치들이 종합되어 1918년 1월 20일(구력) ‘양심의 자유와 교회 및 종교단체에 대한 포고령’(Декрет о совести, церковных и религиозных обществах)이 발표된다. 일명 ‘교회와 국가의 분리 및 학교와 교회의 분리에 대한 포고령’(Декрет об отделении церкви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и школы от церкви)으로 더 유명해진 이 포고령은 이후 소비에트 정책의 기본 종교정책이 되는데, 그 내용은 “종교단체의 재산소유권을 박탈하고 모든 재산은 인민의 재산으로 선포되며, 예배를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역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조도 받지 못하고,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²⁴⁾

그러나,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동일한 포고령이 1918년 11월 20일에 이르러서야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발표되는데, 이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10월 혁명 직후인 1917년 11월 1일(구력) 타슈켄트에서도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이 선언되었고, 이어서 제3차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지역위원회에서 정부구성을 위한 논의와 투표가 행해졌으며(구력 11월 15-22일)²⁵⁾, 투르케스탄 지역의 적군(赤軍)을 조직한 후인 제 5차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대회에서 1918년 4월 30일에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공화국(ТССР)²⁶⁾의 형성이 선언된다.²⁷⁾

24)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1917-1941. Документы и фотоматериалы*(1996), М.:Издательство Библиейско-Богосл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св. апостола Андрея, сс. 29-30.

25) 정부 구성은 사회혁명당이 8석을, 불세비키가 7석을 차지하였고, 인민위원회의 대표로는 불세비키 콜레소브(Ф. И. Колесов)가 선출되었는데, 투르케스탄의 첫 소비에트 정부에는 현지인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26) 투르케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의 인민위원회(СНК)의 대표로는 콜레소브(Ф. И. Колесов)가 선출되었고, 중앙집행위원회(ЦИК)의 36명의 위원중에는 4명의 현지인이 포함되

비록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투르케스탄 지역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우선 혁명 이전부터 이슬람 개혁을 주장하며 계몽과 지역의 현대화를 이끌었던 ‘자디드’²⁸⁾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이용하여 코칸드 지역에서 ‘투르케스탄 자치 정부’²⁹⁾의 성립을 선언하였고, 이들 세력이 강제로 해체된 후인 1918년 2월 말부터 페르가나를 기점으로 하여 투르케스탄 전역에 걸쳐 반(反) 소비에트 활동인 ‘바스마치 운동’³⁰⁾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소비에트 정권의 유지가 최대의 과제가 되었고,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결정된 여러 가지 포고령과 지침들을 실시할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정권은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한동안 종교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 정교회의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는 오히려 혁명 이전에 제정 러시아 정부에 의해 잃었던 권리들을 되찾아주는 조치들이 행해졌다. 1918년 3월 26일 투르케스탄 인민위원회는 “군대 동원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육군성이 관할하던 타슈켄트 그리스도 변용(變容) 대사원(Спасо-Преображенский собор)을 투르케스탄과 타슈켄트의 주교의 관할로 이전시킨다. 대사원의 건물과 모

었다.

- 27) 하지만 국방의 문제라든가 무역, 우편 및 전보, 철도 등은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РСФСР)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된다.
- 28) 자디드란 이슬람 개혁주의자를 의미하는데, 자디드의 형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Д. А. Алимова(2000) *Джадидизм в Средней Азии. Пути обновления, реформы, борьб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와 *Жадидчилик: ислохот, янгиланиш, муस्ताкилик ва тараққиёт учун кураш*(2000)을 참조할 것.
- 29) 1917년 11월 28일(구력) 선언된 ‘투르케스탄 자치 공화국’은 코칸드에서 성립되었다고 하여 ‘코칸드 자치 공화국’ 혹은 ‘코칸드 자치 정부’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이들은 특별한 활동을 하기도 전에 도시를 봉쇄한 소비에트 군대의 대대적인 폭격으로 1918년 2월 22일 항복을 한다. 투르케스탄 자치공화국에 대해서는 С. С. Аъзамхўжаев(2000) *Туркистон Мухторияти, Ташкент*을 참조할 것.
- 30) 바스마치 운동은 1923-24년에 이르면 거의 사라지게 되었지만,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1930년대 초반까지도 저항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앙아시아가 소비에트 체제에서 독립한 이후 현지 학계에서는 산적떼를 의미하는 ‘바스마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팻치산 운동’ 혹은 ‘유격 운동’이라는 뜻의 *истиклолчилик* *харакат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스마치 운동에 대해서는 김경문(1994) ‘구소련의 중앙아시아 강점과 무슬림 저항운동 바스마치 운동(1917-1927)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논문을 참조할 것.

든 교회의 재산은 대사원이 속한 교구에 전달한다”³¹⁾는 내용의 포고령을 내린다. 동일한 조치가 페르가나와 사마르칸트 지역 등에서도 행해지는데³²⁾, 이는 혁명 이후 러시아의 볼셰비키 정권이 내린 ‘종교단체의 재산권 박탈에 관한 포고령’과는 명백히 반대되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제정 러시아 정부의 명령에 의해 박탈되었던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교구 관할권을 소비에트 정부가 회복시켜 줌으로써 투르케스탄 지역 정교회의 환심을 얻으려는 조치였을 것이다.

이러한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정부의 상징적인 친종교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제 체포 및 교회재산 몰수와 같은 종교탄압의 행동은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게 하였다. 이에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주교 인노켄티(Иннокентий(Пустынский) 1912-1923)는 총대주교 티혼과의 상의를 거친 후에 제2차 주교구 사제회의를 개최하여, 1918년 10월 3일 투르케스탄 지방 정교회의 독립을 선언한다.³³⁾ 이 결정에 대하여 현 중앙아시아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인 블라지미르는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독립은 불안정한 정세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평하지만, 이미 교구의 독립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아울리에아트(Аулиеат)와 아쉬하바드(Ашхабад)에 부사교구(副司教區, викарийство)의 설치를 직접 제정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던 인노켄티가 정치 및 정교회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하여 내린 결정으로 보여진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독립으로 인하여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총대주교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지니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제들의 우려와는 달리 투르케스탄 지역의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사제 체포나 교회 폐쇄와 같은 소비에트 정부의 가시적인 탄압은 시작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로부터 정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으니 바로 혁신파와의 갈등이 투르케스탄에서도 시작된 것이었다.³⁴⁾ 1922년 5월 총대주교 티혼

31) ЦГА РУз(우즈베키스탄 국립 중앙 문서보관소), ф. р-25, оп. 1, л. 15, л. 159.

32) 같은 문서, л. 173-173об.

33) Ю. Ф. Буряков, Л. И. Жукова, В. Н. Проскурин(1998), с. 28.

34) 투르케스탄 주교구에 혁신파가 등장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문건이나 논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앙에서 이루어진 혁신파의 쿠데타 이후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도 바로 혁신파의 조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미 투르케스탄 주교구 내에 혁신파 세력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만, 혁명 이전이나 직후에 투르케스탄 종교회의에서 혁신파와 정통파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문건을 아직 발견하지

이 소비에트 정부의 정책을 방해³⁵⁾했다는 이유로 감금되어 있는 동안 쿠데타를 일으킨 혁신파³⁶⁾는 총대주교좌를 대신할 '최고 교회행정국'(Высшее церковное управление)을 설치하고,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지지와 티혼의 파문을 선언하였다. 소비에트 정권의 목인 아래 혁신파는 매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서 1923년에는 전체 정교회 교구의 70%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³⁷⁾

중앙을 장악한 혁신파의 '최고 교회행정국'은 각 정교회 교구에 보낸 서신을 통해 자신들을 따를 것을 강요하였고, 투르케스탄 주교구에도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주교 인노켄티는 '투르케스탄 사제와 평신도의 정기집회'를 열어 "주교구는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최고 교회행정국의 강요는 거부한다"는 의견을 밝힌다.³⁸⁾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장악하는 것에 실패한 혁신파들은 1922년 대주교 니콜라이(Николай(Федотов))를 수장으로 하는 '투르케스탄 주교구 행정국'(Туркестанское Епархи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이하 '주교구 행정국'이라 칭함)을 별도로 조직하고는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장악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 '주교구 행정국'이 등장한 이후 투르케스탄 지역의 신문에는 주교 인노켄티를 비방하는 글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1923년 초 인노켄티는 국가보안부의 체포를 피하여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교좌를 전달하지도 못한 채 한밤중에 타슈켄트에서 도망을 치고 만다.

수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혁신파로 이전하는 사제들과 교회가 차츰 늘어나는 못하였다.

35) 불가지역에 기근이 발생하자 정부는 기근구호를 명목으로 교회의 값진 물건들을 모두 기증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티혼은 법에 금지되어 있는 교회의 자체적 구호 사업을 승인해 줄 경우에만 종교적인 의식 집전과 관련없는 물건을 처분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강제로 교회의 소장품들을 압수하였고, 결국 이로 인한 충돌로 사제들이 사망하거나 구금당했고, 티혼 총대주교도 가택연금 되었다. 제프리 호스킹, 앞의 책, 232쪽.

36) 혁신파는 크게 '살아있는 교회'(Живая церковь), '교회부활연맹'(Союз церков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고대사도교회 공동체연맹'(Союз общин древнеапостольской церкви) 등의 분파들이 있다. 혁신파의 경향과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혁신파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싶다면 ЦГА РУз, ф. р-39, л. 659а, л. 637-642об을 참조할 것.

37) Н. С. Гордиенко(1989) "Православие в Советском обществе. Основанные этапы эволюций," *Русское Православие: Вехи истори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 645.

38) Владимир, митрополит Бишкекский и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й(2004) "В ряде, с большим крестом на груди, он делал доклады в медицинском обществе," *Восток свыше*, выпуск VII. Ташкент: Духовное и литера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издание, с. 11.

기 시작하자³⁹⁾, 정통 정교회는 회의를 통하여 ‘주교구 행정국’에 대처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것을 논의하였고, 1923년 2월 27일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교구 연합⁴⁰⁾’(Союз Приходов Туркестанской епархии, 이하 ‘교구 연합’이라 칭함)이라는 종교단체를 조직한다. ‘교구 연합’의 수장은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주교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인노켄티의 도주로 인해 주교좌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선거로 사제장 안드레이(М.Андрей)를 의장으로 선출하였다.⁴¹⁾

‘교구 연합’은 모스크바에서 열릴 전국교회회의에 보낼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대표를 선출하고, 일반 정교도가 혁신파와 정통 정교회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강연을 하는 등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특히 ‘교구 연합’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조직을 합법화시키는 문제였는데, 이는 1923년 3월 24일에 반포된 투르케스탄 중앙집행위원회(ЦИК)와 인민위원회(СНК)의 49호 명령에 의해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해야 했다” 때문이다.⁴²⁾ 비록 당시 투르케스탄 지역의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이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혁신파의 ‘주교구 행정국’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교구 연합’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교구 연합’의 합법화 시도는 실패하게 되는데, 1923년 5월 12일 투르케스탄 공화국 내무 인민위원회는 “‘주교구 행정국’이 ‘교구 연합’보다 먼저 발생하였고, ‘교구 연합’은 ‘주교구 행정국’에 반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⁴³⁾ 단체의 승인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교구 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내무 인민위원회에 다시 청원을 넣지만 동일한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고, 투르케스탄 중앙 집행위원회 간부회에 넣은 마지막 청원마저 거절을 당해 결국은 법적인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⁴⁴⁾ 투르케스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비록 그

39) ЦГА РУз, ф. р-39, оп. 1, д. 659а, л. 55.

40) ‘교구 연합’에는 타쉬켄트의 10개 교구와 시외의 기타 교구들, 투르크멘 주, 아울리에아트, 페로프스크, 카잘린스크 등의 교구들이 참여를 하였다. ЦГА РУз, ф. р-17, оп. 1, д. 798, л. 1.

41) ЦГА РУз, ф. р-39, оп. 1, д. 659а, л. 58-58об.

42) 같은 문서, л. 225-225об.

43) ЦГА РУз, ф. р-17, оп. 1, д. 798, л. 4.

44) 같은 문서, л. 1-3.

시기까지는 공개적으로 정교회에 대한 공격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혁신파의 지원을 통해 정교회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정부가 혁신파를 지원한 것은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정통 정교회의 통치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교구 연합’이 합법화에 실패를 하자, 정통 정교회 사제들은 1923년 5월 31일 선거를 통해 인노켄티를 대신할 수장으로 주교 루카(Лука(Войно-Ясенецкий))를 선출한다. 하지만, 선거 열흘만에 루카는 당국에 체포당하는데, ‘주교구 행정국’의 주교 니콜라이가 루카와 더불어 ‘교구 연합’의 대표적인 활동가인 미하일 안드레이와 주교 안드레이(епископ Андрей, Ухтомский)를 ‘반혁명의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당에 고발을 했기 때문이었다.⁴⁵⁾ 정통 정교회의 통치 조직인 ‘교구 연합’의 합법화에 실패를 하고, ‘교구 연합’의 형성부터 주최가 되었던 세 사람마저 구속되자 정통 정교회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혁신파의 ‘주교구 행정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통 정교회의 사제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 1923년 7월 22일 ‘주교구 행정국’의 니콜라이는 “티혼주의자⁴⁶⁾이면서 ‘거짓’주교인 루카를 추종하고 ‘반혁명 행위’를 하고 있으니, 지역에서 추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제 20명의 신상명세를 소비에트 정부에 넘긴다.⁴⁷⁾

그런데, 비록 자신들과는 견해가 다르다고는 해도, 혁신파가 정통 정교회의 사제들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무신론자인 소비에트 정부의 손에 넘기면서까지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은 혁신파의 주장이 옳다고 정통파 사제들을 설득하여 포섭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 정통파 사제를 공격하는 행위에 더욱 자극이 되었던 것은 혁신파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주교구 행정국’ 의장 니콜라이의 1923년 7월 21일의 보고서를 보면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현재 매우 심각한 분열상태에 있다: 가장 부유한 사원과 교구, 그리고 그에 소속된 재산들

45) Владимир, митрополит Бишкекский и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й(2004), с. 9.

46) 혁신파들은 정통 정교회를 총대주교 티혼을 추종한다는 의미로 ‘티혼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47) ЦГА РУз, ф. р-39, оп. 1, д. 659а, л. 26.

이 티혼주의자에 속해 있고 <...> ‘주교구 행정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주교구 행정국’이 정권과 교회의 적과 싸울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획득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⁸⁾ 이 보고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및 학교와 교회의 분리’에 관한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는 투르케스탄 교구의 재산이 몰수되지 않고 정교회에 속해 있었으며, 혁신파가 소비에트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의 생존을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통 정교회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여하튼 혁신파의 활동이 전체적으로는 정교회를 약화시켜서 소비에트 정권에 이롭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자 지역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파를 돕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1924년 1월 26일 시르다리아주 집행위원회가 내무인민위원회에 보낸 비밀문서에 의하면 “시르다리아주 집행위원회는 혁신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구교회⁴⁹⁾(정통 정교회) 사제들 중에서는 아직도 허가된 모임을 반소비에트 사상과 신교회(혁신파)에 대항할 것을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혁신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살아있는 교회의 현재의 주교를 정교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다 강한 사제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하여 중앙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구교회의 조직은 승인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⁵⁰⁾

결국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정통정교회는 새로운 통치조직인 ‘교구 연합’을 합법화하는 데에 실패하였고, 곧이어 핵심 활동가들마저 구속되어서 더 이상의 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혁신파에 속하지 않은 사제들은 ‘주교구 행정국’의 적극적인 고발활동으로 인해 체포되어 유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후 정통 정교회의 사제들은 형식적으로라도 혁신파와 연합⁵¹⁾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는 혁신파의 활동만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48) 같은 문서, л. 64-64об.

49) 혁신파의 등장 이후 정부의 문건에 정통 정교회는 구교회로, 혁신파는 신교회로 표현되고 있다.

50) 앞의 문서, л. 221-221об.

51) Ю. Ф. Буряков, Л. И. Жукова, В. Н. Проскурин(1998), с. 31.

4. 종교정책의 변화와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대응

1918년 2월 말에 시작된 ‘바스마치’ 저항은 1923년에 접어들면서 거의 세력이 약화되어 일부 산간 지역에서만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신경제정책이후 특히 농업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성장하였으며, 1921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한 ‘코쉬체 연맹’(союз кошчи)⁵²⁾은 농촌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어 정부 정책의 전달자 역할도 하였다. 종교 학교들이 아직 유지되고는 있었지만 소비에트식 초급학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고, 서적과 잡지 출판도 증가했고, 예술 활동도 활발해졌다. 투르케스탄 지역에서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더불어 소비에트 정권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본격적으로 당 중앙의 종교 정책을 이 지역에서도 실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투르케스탄 지역의 사회가 안정을 되찾자 우선 종교단체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들이 실시되었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1923년 3월 24일 모든 종교 단체들은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진다. 이어서 1923년 7월 19일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포고령의 실시와 관련된 문의’에 대한 훈령에서 교회 폐쇄에 대한 조건들을 다양화시켜서 명문화 하는데, “교회 집단에 참석한 사람이 반혁명적 의사 표현을 하거나, 거주나 보건·의료, 문화·계몽 등의 목적을 위한 건물이 부족하거나, 노동자들이 다수의 성명서나 결의서 등의 형태로 교회 폐쇄를 요구하였을” 경우에 “매우 주의깊은 관찰이 행해진 후에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⁵³⁾고 지시한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는 위의 훈령의 조건에 맞추어 교회가 폐쇄되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폐쇄의 대상이 된 것은 종교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부속으로 딸린 작은 예배당들이었다. 1923년에 ‘민중들의 필요에 따라’ 타쉬켄트에 존재했던 정교회 중에서 양로원 부속 ‘올긴스키 정교회’(Ольгинская церковь)가 노약자를 위한 기숙사로, 병원 부속 ‘그리스도탄생 정교회’(Богородинно-Рождественская церковь)가 공공시설로, 특수 교육학교 부속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정교회’(Александро-Невская церковь)가 학교로 개조되었다.⁵⁴⁾

52) 코쉬체는 ‘농부’라는 뜻의 우즈베크어로, ‘코쉬체 연맹’은 농업과 관련된 공동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었는데, 농업 집단화와 더불어 해체되었다.

53) ЦГА РУз, ф. р-39, оп. 1, л. 659а, л. 157-160об.

비록 본격적으로 교회 폐쇄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더라도 당시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다른 지역에 비한다면 매우 적은 피해를 입었을 뿐이었다. 10월 혁명에 즈음하여 투르케스탄 주교구에는 모두 165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1924년 3월 27일의 기록에 의하면 그 중 겨우 10개의 교회가 폐쇄되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을 뿐이었다.⁵⁴⁾ 게다가 1918년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1924년 투르케스탄 주 집행위원회에 내려진 명령서에는 “여러 종교의 사원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종교단체에 속해있다”⁵⁵⁾고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 적혀있었는데, 이로 보아 투르케스탄 지역의 종교 재산의 몰수가 아직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전반에 투르케스탄 주교구가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투르케스탄 지역의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정부가 종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자제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이 지역의 주교구 내에서 우위를 차지한 혁신파가 적극적으로 소비에트 정권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혁신파의 세력을 이용하기 위해 공격의 시기를 늦춘 것도 또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혁신파가 투르케스탄 주교구 내부에서 사제들을 체포하고, 정교회를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역할만 하였고, 소비에트 정권에 대하여 수동적인 태도만 취했던 것은 아니었다. 1918년 ‘교회와 학교의 분리’에 대한 포고령에 의해 일반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혁신파는 소비에트 정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1924년 ‘투르케스탄 신학 대학’의 설립을 허가받는다.⁵⁷⁾ ‘주교구 행정국’이 주최가 되어 개설한 3년 과정의 이 신학대학은 “교회의 사제와 전도자,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새로운 체제에서도 종교인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시도였다.

새로운 체제에서 살아남는 것은 혁신파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주교구 행정국’의 니콜라이 주교는 1924년 10월 8일 ‘투르케스탄 주교구 사제와 정교도 회의’에서 사제들에게 육체노동을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54) 같은 문서, л. 522-523об.

55) 같은 문서, л. 259-261.

56) 같은 문서, л. 26.

57) 같은 문서, л. 330-332об과 ЦГА РУз, ф. р-39, оп. 2, л. 287, л. 332. 그러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1924년 9월 개학을 목표로 했던 이 신학대학은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을 설명하는 문서는 필자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까지의 투르케스탄 정교회의 재산이 모두 몰수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의해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타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회재산의 몰수가 목전에 임박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니콜라이는 구체적으로 “양봉, 약용식물 경작, 과수원이나 채소밭 개간, 나뭇가지로 물건을 엮거나 선반을 만드는 등의 간단한 수공업 등”에 종사하면서 “신용조합이나 농경단체와 협조할 것”을 사제들에게 제시한다.⁵⁸⁾ 특히 ‘지역의 단체와 협조’할 것을 지시한 사항이 눈에 띄는데, 비록 선교활동에 대해 언급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역단체와의 협조는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사제들이 정교도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제안은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체포를 피한 사제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비밀리에 종교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정치적 개편이 이루어진다.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공화국(ТССР)의 대부분의 지역과 부하라 인민 소비에트 공화국(БНССР) 및 호레즘 인민 소비에트 공화국(ХНССР)의 일부가 병합되어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УзССР)이 설립된 것이다.⁵⁹⁾ 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종교 정책이 바뀌게 되었는데, 1920년대 전반기에는 종교단체와 관련된 경제적·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률의 제정에 힘을 기울였다면, 1920년대 후반기에는 제정된 법률의 실행과 반종교선전에 집중하였다. 민중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각 지역마다 클럽과 도서관, 붉은 찻집(красная чайхана), 붉은 코너(красный уголок), 극장, 박물관, 공원 등이 건설되었는데, 이들 장소마다 반종교 선전을 위한 책자가 놓여졌고, 동시에 반종교선전과 그와 관련된 영화상영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반종교 활동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전투적 무신론자 연맹’(СВБ)이라는 특수 단체도 조직된다. 1925년 4월 모스크바에서 처음 조직된 ‘무신론자 연맹’은 같은 해 중반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페르가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 지부가 설립된다. ‘무신론자 연맹’은 ‘무신론자’(Безбожник)라는 잡지를 중앙에서 발행하고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지부는 1927년부터

58) ЦГА РУз, ф. р-39, оп. 1, д. 659а, л. 642.

59)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성립은 1925년 2월 17일에 선언되었다. 최초의 수도는 부하라였는데, 같은 해 4월 사마르칸트로 그리고 1930년에는 타슈켄트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즈벡어⁶⁰)로 잡지를 발행하여 현지인에 대한 반종교 선전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선전활동과 더불어 소비에트 정부는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마저 가하게 된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교회를 다른 용도로 적극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것이다.⁶¹) 게다가 이제는 혁신파의 고발이 없이도 사제들을 '구교회주의자'라는 죄목으로 구속하기 시작한다. 물론 '구교회주의자'는 '반혁명주의자'라는 공식이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성립되어 있기는 했지만, 1920년대 전반에는 '반혁명 음모'라는 죄목으로만 사제들이 구속되었던 것에 비하면 '구교회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를 한 것은 그만큼 종교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서면 '사제'라는 죄목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예전에는 일반 사제들을 반혁명주의자로 몰아서 구속했듯이,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혁신파의 사제들을 '구교회주의자'로 몰아서 체포하기 시작한다.⁶²) 이는 당시까지 혁신파와 협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택한 우회적인 방법일 것이다. 소비에트 정부의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혁신파의 통치 조직인 '주교구 행정국'은 관련 부서에 서류를 보내어 구속된 사제가 '구교회주의자'가 아니라 '혁신파'의 소속이라거나⁶³), 폐쇄하기로 결정된 교회는 혁신파가 사용하던 것이니 결정을 취소해 달라⁶⁴)는 요청을 했지만, 이미 쓸모가 없어진 혁신파의 이러한 요청은 당연히 거절되었다.

하지만, 반종교 선전이 강화되고, 정교회가 차츰 다른 용도로 개조되어 가고, 일부 교회에 십자가 대신 붉은 기⁶⁵)가 게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올리고 있는 교회에서는 혁명 이전과 동일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28년 12월 타슈켄트 시의 '성모 수태 고지 대성당'(Благовещенской собор)의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에 500여 명의 아기들이 세례를 받았고, 여전히 결혼과 장례식을 관장하고 있으며, 매주 예배에 200명이 넘는 정교도가 참여하고 있었다.⁶⁶)

60) 우즈벡어로는 'Худосизлар'(무신론자)로 번역되어 출판됨.

61) 교회 폐쇄 및 변경에 대한 자료들은 원문서, л. 671과 ЦГА РУз, ф.86, оп.1, л.2222, л. 15 등을 참조할 것.

62) ЦГА РУз, ф. 86, оп. 1, л. 5435, л. 133-133об.

63) 같은 문서.

64) 같은 문서, л. 132-132об.

65) 같은 문서, л. 135.

한편, 투르케스탄 주교구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1929년 4월 8일 ‘종교 단체에 대한 법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религиоз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이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ВЦИК)에 의해 공포된다. 1918년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포고령이 단지 13개의 상징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후 이 포고령을 보완할 법령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된 것에 비하여 1929년의 ‘종교 단체에 대한 법령’은 총 68항의 매우 상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1918년의 포고령보다 더욱 엄격하게 종교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1929년의 법령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반드시 등록을 한 후에 활동을 할 수 있고(4항), 등록을 위해서는 18세 이상 20명이 구성되어야 하며(3항), 개인은 단 하나의 종교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2항), 종교단체는 구성원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고(17항), 특별하게 성별·연령별로 종교나 혹은 다른 목적의 모임을 조직하거나 도서관을 여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고(17항), 종교교육은 특별 허가를 얻은 신학수업에서만 허락되며(18항), 공개된 장소에서의 예배나 의식(67)의 수행은 최소한 2주 전에 신청하여 특별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게(59항) 되었다.⁶⁸⁾ 즉, 종교단체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 것이었다. 1918년과 1929년의 두 법령은 구소련의 붕괴시기까지 소비에트의 종교정책에 대한 기본 법령이 되었는데, 다만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법률을 실행하는 엄격함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교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바뀌어 대부분의 정교회 사원을 파괴해서 없애는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1917년 이전 타슈켄트에는 16개⁶⁹⁾의 정교회 사원이 있었는데, 이머 언급한 세 개의 작은 교회만 1923년에 ‘인민의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66) 같은 문서, л. 133об. 이 문서는 정교회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교회가 혁명 이후에도 정교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67) 세례나 결혼, 장례식과 같은 것을 말함.

68)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1917-1941. Документы и фотоматериалы*(1996), сс. 250-261.

69) Владимир Кондратенко(2002) "От русских мечетей к Духовному центру," *Восток свыше*, выпуск III, Ташкент: Духовное и литера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издание, с. 31. 타슈켄트의 정교회 사원의 수는 문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여개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는 유지되어 예배를 위해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타슈켄트의 정교회가 1920년대 후반을 무사히 넘긴 것은 정부가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중심지보다는 정교도의 수가 적은 지방 정교회의 폐쇄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초반에는 타슈켄트에 위치한 대부분의 정교회 사원마저 파괴⁷⁰⁾되거나 해체되어서 1936년 1월 1일의 보고서⁷¹⁾에 의하면 단지 세 개의 교회만 남게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해진 정부의 공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가 사라지고 사제들도 거의 구속됨으로써, 투르케스탄 주교구에서는 혁신파의 ‘주교구 행정국’의 활동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구소련 내의 혁신파 교회는 1930년대에 이미 거의 모든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지원할 수 없었고, 1937년부터 1945년까지는 정통 정교회에서도 투르케스탄 주교구에 사제를 파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투르케스탄 주교구⁷²⁾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어서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에⁷³⁾ 중앙아시아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던 곳은 사마르칸트의 성모제(聖母祭) 대사원(Покровский собор) 뿐이었다.⁷³⁾

그러나 이와 같이 대외적인 활동이 사라졌다고 해서 1930년대 이후에 투르케스탄 주교구내부의 신앙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에 혁신파에 의해 모함을 받아 떠났던 사제들이 형을 마치고 투르케스탄 주교구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탄압을 받은 사제들도 ‘뜨거운 시베리아’인 중앙아시아로 유배를 오게 되면서, 일반 정교도들을 위한 모임과 사제들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는 ‘카타콥’ 운동⁷⁴⁾을 비밀리에 펼쳐 신앙활동을 지속시켰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으로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오랜 기간 정식으로 파견된 주교가 없이도 정교회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70) 각 사원의 형성 시기와 파괴된 시기를 확인하려면 В. Б. Заславский(1998) "Из истории православных храмов Ташкента," *К истории христианства в Средней Азии*, Ташкент, сс. 101-115을 참조할 것.

71) ЦГА РУз, ф. р-86, оп. 10, л. 770, л. 1.

72)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총대주교 세르기이의 명령에 의해 1936년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하는 타슈켄트와 중앙아시아 주교구, 알마티를 중심으로 하는 알마티와 카자흐스탄 주교구로 나뉜다.

73) Владимир Кондратенко(2002), с. 31.

74) 중앙아시아로 유배된 사제들 중에는 총대주교 세르기이(Сергий)가 소비에트 정권을 지지할 것을 선언한 것에 반대를 하며, 세르기이에 대해 반대하는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Владимир, митрополит Бишкекский и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й(2004), с. 20.

5. 맺음말

러시아 정교회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것은 제정 러시아가 정복자로서 지역 모슬렘들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기 위한 선교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땅을 찾아 이주한 러시아 농민들의 종교적 욕구 때문이었다. 지역 모슬렘들을 자극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당하지 않으려는 러시아 총독부의 철저한 비협조 속에서도 러시아 정교회는 교구를 개척하여 1871년 6월 17일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설립한다. 오랜 기간 국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총독부와의 갈등으로 일부 교구에 대한 관할권을 잃으면서도,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는 러시아인이 증가함에 따라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10월 혁명 직전 세미레치 주교구가 형성되어 분리될 정도로 성장한다.

소비에트 체제의 종교정책은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권리—특히,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종교단체의 환심을 얻으려는 정책이 행해지고, 이에 오히려 제정 러시아 시기에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조치가 행해지기도 한다.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위기는 소비에트 정권의 종교단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바로 혁신파와의 갈등이었다.

1922년 5월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티혼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정교회의 중앙 권력을 장악한 혁신파는 매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였고, 투르케스탄 주교구도 혁신파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하지만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혁신파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에 혁신파는 ‘투르케스탄 주교구 행정국’이라는 독자적인 통치조직을 형성하고는 정통 정교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혁신파의 음모로 주교를 잃은 정통 정교회는 ‘주교구 행정국’에 대항할 ‘투르케스탄 교구 연합’을 조직하고 합법화를 시도하지만, 정부는 혁신파를 지지하여 ‘교구 연합’에 대한 승인과 등록을 거부하게 된다. 혁신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통 정교회의 사제들을 ‘반혁명주의자’로 고발하여 구속되게 만든 후 결국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교권을 장악하게 된다.

투르케스탄 지역의 사회,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소비에트 정부는 적극적으로 종교를 공격하기 힘들었고, 이에 1920년대 전반기에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총 165개의 교회 중에서 단지 10개 미만의 교회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

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이러한 양호한 상태는 1920년대 후반 투르케스탄 지역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바뀌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 소비에트 정부는 반종교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의 필요에 의해'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다른 용도로 개조하기 시작한다. 투르케스탄 주교구를 장악한 혁신파의 '주교구 행정국'은 정교회와 사제들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이미 모든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한 정부의 조치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나마 다른 주교구들보다는 많이 유지되고 있던 예배당에서 혁명 이전과 같이 예배를 올리고, 세레나 결혼, 장례 등의 성찬식을 올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뿐이었다.

그러나, 1929년 '종교단체에 대한 법령'에 의해 이런 제한된 활동마저 금지되게 된다. 이 법령에 의하여 종교단체는 오로지 예배활동만 허락되었으며, 성찬식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1920년대에는 정교회 건물이 단지 용도 변경이 된 것이어서 외형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원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교구 사제들도 '사제'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유형에 처해진 상태에서, 1937년부터 1945년까지는 사제도 파견되지 않았고 예배 활동을 지속하는 정교회 사원도 단지 하나만 남게 되어서, 투르케스탄 주교구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주교구가 되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로 유배를 받은 사제들이 비밀 예배조직을 구성하여 투르케스탄 주교구 내의 신앙생활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된다.

이상과 같이 혁명 이후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연구를 통하여 현대의 중앙아시아 정교회가 1920·30년대의 투르케스탄 주교구의 변화 과정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시기에 정통 정교회의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정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사제 고발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혁신파의 활동을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혁신파도 분명 정교회의 일부였고, 또한 이들의 활동으로 투르케스탄 주교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상기해 보면 정통 정교회도 언제까지나 이들의 활동과 역할을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ЦГА РУз(우즈베키스탄 국립 문서 보관소)

ф. р-17, оп. 1, д. 798.

ф. р-25, оп. 1, д. 15.

ф. р-39, оп. 1, д. 659а.

ф. р-39, оп. 2, д. 287.

ф. 86, оп. 1, д. 2222.

ф. 86, оп. 1, д. 5435.

ф. р-86, оп.1 0, д. 770.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1917-1941.

Документы и фотоматериалы(1996),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Библейско-Богосл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св. апостола Андрея.

2차 자료

Алимова Д. А.(2000) *Джадидизм в Средней Азии. Пути обновления, реформы, борьб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Ташкент.

Буряков, Ю. Ф., Жукова, Л. И., Проскурин, В. Н.(1998) "К истории христианства в Средней Азии," *К истории христианства в Средней Азии*, Ташкент: Ўзбекистон.

Владимир, Митрополит Бишкекский и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й,(2002) *Земля потомков патриарха Тюрка*,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й Патриархии.

_____ (2004) "В ряде, с большим крестом на груди, он делал доклады в медицинском обществе," *Восток свыше*, выпуск VII. Ташкент: Духовное и литера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издание.

Гордиенко, Н. С.(1989) "Православие в Советском обществе. Основанные этапы эволюций," *Русское Православие: Вехи истори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ондратенко, Владимир.(2002) "От русских мечетей к Духовному центру," *Восток свыше*, выпуск III. Ташкент: Духовное и литера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издание.

- Поспеловский, Д. В.(1995)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в XX веке,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а».
- Яковлев В. А.(1902) *Из церковной жизни Туркестана*, Верный.
- Аъзамхўжаев, С. С.(2000) *Туркистон Мухторияти*, Ташкент.
- Жадидчилик: ислохот, янгиланиш, мустақиллик ва тараққиёт учун кураш*(2000) Таш-
кент.

Abstract**The Change of the Turkestan Diocese in Soviet Central Asia****Choi, So-Young**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understand how the Turkestan diocese changed for more than twenty years since the 1917 revolution. The Russian Orthodox church advanced into Central Asia to meet the religious desire of Russian peasants who immigrated to the region in search for land to plough, not to make Muslims christianized. The Russian government-general didn't give any economic support to Orthodox church in Central Asia with its policy not to stimulate the Muslim. However, thanks to the assistance of Russian peasants and merchants, the number of the Orthodox church increased and the Turkestan diocese was founded on June 17, 1871.


But the growth of the Turkestan diocese came to a deadlock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oviet authorities in Central Asia. The persecution on religion in Central Asia began a little late due to the political confusion of the region. On the contrary, the first crisis of the Turkestan diocese came up not by the persecution of the Soviet authorities but by the split of Russian Orthodoxy. Some 'progressive' priests(*obnovlenchestvo*) formed the 'administration of the Turkestan diocese' and denounced the members of the 'official church' to the authorities on a charge of 'anti-soviet activity' for the purpose of coming into regional power. The hostile act of *obnovlenchestvo*, prohibited the 'official church' from public activities, so the priests of the official church unwillingly had to associate with the *obnovlenchestvo* in the formal way. The *obnovlenchestvo* ended up coming into operation alone in the Turkestan diocese.

In the late twenties the persecution of the Soviets on religion began as the Uzbekistan society became stabilized. The anti-religion propaganda was

intensified and some church buildings were used in different ways to meet the 'need of the people'. But it was until this period that the Soviets and the obnovlenchestvo kept cooperation, so many churches were kept alive compared to other regions.

Coming into the thirties, the Uzbekistan Soviets destroyed churches and arrested almost all priests. As a result, the Turkestan diocese barely maintained life. But the priests exiling from other regions organized secret church services, so the religious life of the Turkestan diocese was able to stay in existence.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5. 10. 4
	논문심사일:	2005. 10. 17 ~2005. 11. 14
	심사완료일:	2005. 11. 25